

# 조계종 신도회 결성 난항

## 스님 간여·재가불자 자율성 축소...파행 속출

조계종이 추진하고있는 중앙 신도회 결성이 난항을 겪고있다. 중앙신도회 준비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14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총회에서 총무원과 위원장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규약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에서 선임키로한 사무처·차장을 준비위원장이 임명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분과위원

회를 준비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해 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신도대표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위원과 상임위원을 각각 3백명, 1백8명으로 확대했으나 총회및 상임위원회 정족수를 40인, 20인 이상 출석으로 한정해 신도회준비위원장이 내정되었으나 합 상법준비위원장이 이상현교수(동국대)를 지명하고 함께 선임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해 한상범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회는 신도회가 구성되기까지 한정적인 기구로 짧은 시간에 신도회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권한이 확대되어야한다"고 말했다.

## 10·27법난 진상 규명 청원

### 조계종 조사특위 구성·자료수집 보고서 작성

5·18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불교 최대 치욕사건으로 기록된 10·27법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명진)는 지난 13일 '10·27 법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5·18 연속 선상에서 10·27법난에 대해서도 동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법적 청원과 불교계 내부조사를 결의했다. 명진 여인 진관 지만 대원스님 등 5인 소위는 최연(재가연

합 집행위원장) 윤남진(전불련 사무처장) 등 2인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내년 2월까지 피해자육성증언 청취 및 자료를 수집,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3월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0·27 진상조사에 들어간 소위는 △10·27 법난 발생의 근본이유는 무엇인가 △형과 대·정보부 등에 진정서를 보낸 사람들은 누구인가 △10·27 법난의 입안자는 누구인가 △내부적으로 동조한 부역자는 누구인가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실시한다.



△삼군대학법당 수국사가 32억원 예산을 투입 건평 5백평 규모로 신축했다.

# 삼군법당 수국사 '전법행군'

## 17일 낙성식...중부지역 호국도량 면모 갖춰

대전 삼군대학 법당 수국사(주지 이용규 법사)가 마침내 그 장엄함을 드러냈다. 수국사는 지난 17일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성식을 봉행하고 군법당으로 하고 있는 중앙승가대의 실무지역 불교전법 중심으로서의 용틀임을 시작했다.

지난 94년 8월 착공해 총 3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이번엔 선보인 수국사는 대지 1천4백여평에 건평 5백여평 규모로 한 개의 건물에 법당을 둘러싸고 요사채들이 마련돼 있는 독특한 구조로 짜여져 있다. 수국사가 위치한 곳은 군 최고 고교교육기관인 육·해·공군 대학을 비롯 많은 부대들이 들어서 있는 유성구 자운동. 따라서 영관급 이상 고급장교들을 대상으로 포교일선에 나서게 될 수국사의 건립의미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군의 특성상 지휘관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들을 상대로 한 전법포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 지역에는 삼군 대학뿐만 아니라 각급 교육기관이 모여 있어 포교만이 아닌 군 교육과 정보의 흐름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국사는 명실부합한 군포교의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수국사는 삼군대학 교육생뿐 아니라 이 지역의 군인가족, 장병들을 대상으로한 새로운 포교프로그램을 마련, 군불자 정신전력강화등을 통해 호국호법도량으로서의 면모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수국사는 이지역 불자들이 위해 법당을 개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법포교는 물론 불교 교양대학 설치, 각종 선학단체 조직등 궁극적으로 지역 불교회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 군포교는 물론 중부지역 최고의 전법도량으로 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 <대전=한영우 기자>

## 문화재관리국 예산

### 내년 909억원 책정

내년 문화재관리국 예산은 95년도보다 24.7% 늘어난 9백88억9천8백만원으로 문체부 예산 4천2백66억원중 21.6%를 차지하고 있다. 문체부 예산은 96년도 정부 예산 57조9천6백21억원의 0.79%에 이른다 문화예술훈을 따로 보면 0.56%에 불과하다. 이 액수는 선진국 문화예술훈 예산이 1% 내외임을 감안하면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내년도 신규사업중 불교문화 관련 사업을 항목별로 보면 △신선사당 전국 8개 본사의 사찰유물전시관 건립에 40억원 △매장문화재 발굴비지원에 5억원 △백제역사 재현단지조성에 16억원 △청주 고인쇄박물관 건립에 30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고구려정비에 1백14억4천만원 △신축 국립중앙박물관 설계 및 조선허구역사박물관으로의 이전 등에 2백2억7천5백만원이 책정됐다.

# 승가대 김포이전 1년 연기

## 사업비 미확보...정원등 규모 축소키로

중앙승가대의 김포학사 이전이 1년 연기됐다. 중앙승가대학 이사회(이사장 일주)는 지난 8일 이사회를 통해 김포학사 건립에 따른 이전 비용의 미확보와 관련 준비업무의 지연을 이유로 학사이전을 연기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또 1천여명 정원 671억원 공사를 한다는 계획을 수정, 2백여억 내외에서 1차년도 사업으로 정원 4백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본부, 강의동, 운동장 조성공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직무대행 해창삼, 이사장 정우스님, 학장, 법인 사무처장, 교육위원장, 승가대 대적위원장, 승가대 기획실장, 대적위 간사 등으로 이전 실무 소

위원회 구성, 학사 이전에 따른 제반사항을 추진키로 했다. 같은 날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승가대 대책위는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보고받고, 학사이전 연기의 불가피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118차 총회에서의 결의내용과는 달리 소책매를 복지법인을 단독추진하고 있는 중앙승가대의 실무진들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 위원회를 구성,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성문스님이 대책위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 강원도 사찰 불교복지 앞장

### 건봉·신흥·극락사등

최근 강원도내 사찰들이 대형 불사를 회향하고 각 종단별로 사회복지시설을 건국하는 등 다양한 포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선도에 나서고 있다. 고성 건봉사(주지 현소스님)는 지난달 24일 대웅도와 산신각을 복원, 낙성식과 점안식을 봉행한 것을 비롯, 내년에는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봉서루, 대

지전, 사성전, 대석당, 어실각 등을 복원할 계획이다. 속초 신흥사(주지 지홍스님)는 지난 3일 '가사불사' 및 선반부도 유주무주 고현도영산대법회를 봉행하고 영동지역 포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향 극락사(주지 자음스님)도 올해 도내 최고시설과 규모를 자랑하는 '연화유치원'을 개관하고 유아포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월정사(주지 현해스님)도 지난 10월 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군불자 8백여명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여는등 군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구치소 고흠 천도재 부산 교정교화불교회

불교를 소재로한 영상물이 줄이어 시상에 올라 주목을 끌고있다. 영화제작사 씨엔필이 제작한 '백양사의 전통다비'는 지난 10일 영상물과 음악의 한 해를 결산하는 '95 영상 음반 대상'에서 골든 비디오 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백양사의 전통다비'는 만안스님의 행적을 그린 영화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네'를 촬영하며 다비장면을 별도로 비디오화한 작품. 제작자인 황화봉감독은 "만안스님의 다비식을 재현하던 중 백양사의 신비한 전통다비 의식이 문화재적 가치를 받을 만할 것"이라며 "백양사의 다비를 통해 숭고한 불심의 세계가 일깨워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불교TV가 초파일 특집으로 방영한 '출가! 새로운 탄생'은 탄생'이 지난 12일 '케이

소적새마을 장애인 26일 3쌍 화촉밝혀 소적새마을(원장 보각스님)에서 생활하는 가족 가운데 장애인 3쌍이 오는 26일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신축된 소적새마을을 법당에서 화촉을 밝히게 되는 이번 결혼식의 주인공은 최도석씨(36세)



# 불교영상물 우수성 인정

btn '출가! 새로운 탄생' 케이블TV 금상 '백양사의 전통다비' 씨엔필 영상음반 대상

'출가! 새로운 탄생'은 출가하여 사계계를 받기까지 새 스님이 탄생하는 과정을 우리나라 최초로 밀도있게 표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김원우 기자

## 범어사 설법전 기공

### 97년 9월 완공 예정

제14교구본사 범어사(주지 정관)의 숙원사업이었던 설법전 기공식이 지난 10일 해행당에서 거행됐다. 정관, 해홍(부주지), 훈광(삼광사 주지)스님을 비롯,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 박종용 국회의원등 내외귀빈과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신축되는 설법전은 지하층, 지상2층 연면적 1천2백36평으로 1층은 강당, 중무소 2층은 설법전으로 설계된다. 완공은 97년 9월말이다.



△도심포교당 법련사 영산대법전이 웅장한 모습으로 탄생했다. 내년초 종합회합법회를 갖는다.

익불정책으로 6백여년간 묵락소리가 끊어졌던 서울 경복궁 인근에 부처님 도량 이 건립됐다. 도심자각열에 자라한 송광사 서울본원 법련사(주지 현호)는 중흥불사 2년만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250여평의 영산대법전을 건립하고 청와대주변의 고도제한과 을 비롯 불일서점, 불구용품 집이 들어섰다. 2층은 불일회관과 시민선방, 3층 1백20평 규모의 대법당 마무리작업이 한창이다. 또한 누각에는 16국사를 상징하는 1천6백관무개의 불일법종과 불일문이 한창이다. <영>

## 경복궁열 부처님 도량

### 법련사, 영산대법전 건립...22일 이주법회

입주를 시작했다. 21년전 일반주택을 개조해 개원한 법련사는 불일회를 비롯한 신학단체와 보조사상 연구회등 도심포교당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영산대법전은 지하에 1백여평 규모의 전시실과 다원이 마련됐으며 지상 1층에地藏전

## 정각원 이용 크게 늘었다

### 하루평균 1백여명...작년대비 50% 증가

학생들의 심신수련 도량으로 각종 법회 및 불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동국대 정각원을 이용하는 수가 1일 평균 1백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해 최근 정각원이 자체조사한 '95학년도 정각원 법회 및 행사 참석현황조사'에서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각원은 1년동안 교내 관공회, 좌선회등 교내신학단체의 법회, 고승초창법회를 비롯 불교문화사, 불교학 개론 등의 전공·교양수업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각원은 학생들의 인

## 결국 범어사앞에 아파트 설립

### 양측 소취하...불자·주민들 반대 '공염불'

지난 4월부터 8개월여를 끌어온 금정산 범어사 초입 경동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가 범어사(주지 정관)와 경동건설(대표 김재진) 양측의 일괄 소취하 마무리됐다. 이로써 범어사 스님 40여명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던 경동건설은 아파트 설계도면을 1백98m로 제한해 시공하게 됐다. 범어사도 그간 공사지연으로 인한 54억여원에 달하는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뜻을 비쳐온 경동건설에 대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취해왔다. 그동안 수차례 걸친 건립반대 집회, 단식농성 돌입, 산문 폐쇄 고리(8월16일), 부산 자연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성, 집회, 가두시위(9월2일) 등을 벌여온 불자 및 부산시민들은 범어사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내년 불교청소년의 해를 앞두고 실시된 한국불교청소년지도자대회는 청소년지도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 "전국규모 청소년단체 결성하자"

### 지도자대회서 시도별 수련원설치등 의견제시

전국의 불교 청소년지도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났다. 지난 '9. 10일 양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된 '한국불교청소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3백여 청소년지도자들은 전국규모 단체를 통한 미래 한국불교의 희망적 구국을 위해 청소년 포교의 방법을 모색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단체 설립의 당위성이 일선 지도자들의 의해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 지도자의 밤과 분과토론을 통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전개해 온 포교활동을 소개하고 청소년 포교활동의 의의와 결속을 다졌다. 또한 전국 청소년지도자들의 재조직, 전국 사찰의 포교 의무화, 초·중·고 연립별 연구원 설치, 각 시도별 수련원 설립, 지도자 연수기회 확대 등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에 대한 활발한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지방 불교학생회와 청소년 신학단체에 대한 조직적인 포교지도 및 예산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같이한 청소년

지도자들은 청소년포교의 정책 부재에 대해 지적하고, 종단차원의 계획적인 재정마련을 기대했다. 한편,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 신학혁신 운동에 지도역량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청주=도필선 기자> 21일 봉은사 윤이상씨 49재

故 윤이상씨의 49재가 오는 21일 오후3시 봉은사 대웅전에서 49재봉행준비위원회(위원장 무삼스님) 주최로 열린다.